



평화포럼 21

2005년 여름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

The Institute 21 For Peace Studies

동아일보 부설



평화포럼 21

2005년 여름호 (통권2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차례

매력국가론 서설	김상배	6
----------	-----	---

제 1부**세계 속의 매력한국**

매력의 세계정치	최정운	26
한류 열풍의 해부	이안재	44
IT성공의 비결	조희순	70

제 2부**주변국가의 매력**

매력 딜레마에 빠진 미국	전재성	96
매력 없는 경제대국 일본	손 열	120
중국, 그 잠재적 매력	신상범	140

제 3부**매력국가 전략**

문화유전자와 화산 네트워크	민병원	162
지식생산의 미래전략	배영자	190
매력한국의 문화외교	김명섭	212



매력국가론 서설



김상배

金相培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미국 앤디애나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실력(實力, hard power) 측면에서 비(非)강대국인 나라가 세계정치의 현실에서 매력(魅力, soft power)을 발휘할 방법은 무엇인가? 폭력도 없고 금력(金力)도 충분하지 않지만 매력은 있는 국가가 되는 길은 없을까? 그러한 매력을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각별한 주목의 대상이 된 한류(韓流)와 한국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성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류와 IT산업을 비즈니스 차원의 단편적인 성공을 넘어서 국가의 매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필자들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각별히 주목받고 있는 매력의 세계정치를 이론적·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매력국가 전략에 대한 분석적인 작업을 펼쳤다.

소프트 파워 vs. 매력

이 책의 테마인 매력국가론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나이 (Joseph S. Nye, Jr.)의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나이는 지난 십여 년의 개념화 작업 끝에 최근 「소프트 파워 : 세계정치 성공의 수단」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이라는 단행본을 펴낸 바 있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둔 정책개념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적인 학술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나이의 개념은 권력이동(power shift)의 두 가지 차원, 즉 권력의 주요 원천이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비물질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강제와 제재의 방식으로부터 간접적인 설득과 유도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나이는 하드 파워로부터 소프트 파워로의 이동이라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그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전파시키는데 남다른 성과를 발휘하였다. 요컨대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물적 기반과 작동 메커니즘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적 변형을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 권력의 본질을 쉽게 풀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의 국제정치학자에게도 개념으로서의 소프트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하드 파워의 관점에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프트 파워의 세계정치는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학자가 제시한 개념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거울아! 거울아! 나도 예쁘니?” 하고 읊조리기에는 나이의 개념 자체가 강대국 중심의 세계정치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나이의 소프트 파워 개념은 탈(脫)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세계패권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적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등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소프트 파워라는 나이의 거울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반사시켜 발산하는 데 주안점이 있을 뿐이며 거울의 한쪽 구석에 비친 비강대국의 소프트 파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나이의 거울은 소프트 파워 자체를 재는 미(美)의 척도마저 좌지우지하여 세계정치라는 미인대회의 심사위원 노릇까지 할 소지가 다분하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이 책의 필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나이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되비추어 보는 행태를 넘어서 우리의 거울, 즉 매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매력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력의 ‘홀릴 매(魅)’ 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소프트 파워보다는 차밍 파워(charming power)에 가깝다. 일상생활에서 매력은 이성적이고 점잖은 담론보다는 감성적이고 야한 얘기를 연상시키는 용어

다. 매력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는 데도 다소 야한 비유를 들어 보자. 예를 들어, 서울 시내의 술집 중 가장 매력 있는 곳은 어디일까? 술꾼들이 단골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단골집의 비결은 무엇일까? 단순히 술맛이 좋다거나 술값이 싸다는 이유를 넘어서는 어떤 매력이라는 것이 있을까? 마담의 미모인가, 술집의 인테리어인가, 런 안주의 유혹인가, 아니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술집만의 분위기인가?

이번엔 술집 마담이 되어 손님을 많이 끄는 매력의 전략을 생각해 보자. 소문난 술 맛과 '가격파괴'의 술값은

일단 접어두고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을 벌인다고 할 때 다른 술집보다 손님을 더 많이 끌 전략은 무엇일까? 단골손님을 확보하자면 좌중의 술꾼 중 누구의 마음을 흐리어 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술값 내는 물주인가, 말술을 마다 않는 술상무인가, 아니면 술자리에 웃음꽃을 피우는 재담꾼인가? 요컨대, 매력의 야담이 술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진대,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흐리어 끄는 힘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으로 잡담 반, 토론 반의 논의를 벌이다 보니 새로운 테마로 던져 놓은 매력의 개념적 정체를 밝혀내기보다는 이 책의 필자들이 오히려 매력의 개념에 흘리어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만 같았다. 게다가 매력의 개념을 밝히는 작업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매력은 실력과 분리해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실력을 쌓는 것보다는 매력을 쌓는 것이 좀 더 용이해 보여서 달려들었건만, 정작 따져보니 실력 없이 매력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력 있는 자가 매력까지 획득할 확률이 큰 것이 현실이었다.

■ 매력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흐리어 끄는 힘"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력의 '홀릴 매(魅)' 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소프트 파워보다는 차밍 파워(charming power)에 가깝다.

나이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설정하고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필자들이 버리고 싶지 않았던 직관은 바로 매력이라는 힘은 실력의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매력의 구성 요소

그렇다면 매력은 어떠한 개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책의 필자들은 매력의 정체가 무엇인가하는 '존재론'의 질문에서 출발해서, 이러한 매력을 '도구론'의 차원에서 어떻게 가공하고, 그 매력을 효과적으로 발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론'을 펼칠 것인가의 순으로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매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단번에 내릴 수는 없었지만 매력 개념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추출하여 연구 작업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 책의 필자들이 매력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대로 제시한 것은 문화, 지식, 외교 세 가지 차원으로 요약된다.

첫째, 매력은 상대의 가슴을 품어주는 마음의 힘, 즉 심력(心力)에서 나온다. 이렇게 가슴으로 품어서 상대를 호리는 힘은 우리가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데, 이는 매력의 '존재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그 나라 특유의 문화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당시 국제사회 전체에 구현되고 있는 보편적 이념이나 문명적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매력의 핵심 차원은 보편적인 문화역량이며, 이는 도덕적 우위의 확보나 규범적 설득력 등을 포괄하는 덕력(德力)으로 통한다. 나

이도 그의 저서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소프트 파워의 수단으로써 대중문화와 그에 담긴 미국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겨울연가', '올드 보이', '보아' 같은 한류의 성공도 한국 문화가 지니는 보편적 설득력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매력은 상대의 머리를 사로잡는 지식의 힘, 즉 지력(知力)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성에 호소하여 상대를 호리는 힘은 우리가 기술·과학·지식(이하 통칭하여 지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실력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매력의 구성 요소이다. 아무리 심금을 울리는 고급문화라도 그것이 촌스러운 그릇에 담겨 있으면 매력이 없다. 아무리 빼어난 자연 미인이라도 떡칠 화장을 하면 흉물스럽게 보일 뿐이다. 간혹 화장술이 미인을 새로 태어나게 한다. 초상화의 모델을 빛나게 하는 것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기예(技藝)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은 문화의 매력을 가공하는 '도구론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가 소프트 파워의 조건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지식이 사회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이 IT와 문화를 융합하는 CT(culture technology)나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BT(bio-technology)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한국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과 같은 IT산업 분야에서 거둔 성공이 빛을 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매력의 구성요소로서 앞서 언급한 심력과 지력을 슬기롭게 활용하는 지혜의 힘, 즉 지력(智力)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지덕(知德) 자원의 보유 여부를 넘어 교묘하게 행(行)하여 상대를 호리는 힘인데, 상황에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능력인 외교와도 통한다. 이러

한 점에서 외교는 존재론적 매력이나 도구론적 매력을 넘어서는 매력의 '전략론적 측면'이라 하겠다. 전략으로써 매력의 요체는 상대방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매력을 은연중에 교묘하게 발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존경과 사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번축과 경멸을 자초하기 일쑤이다. 이는 야구경기에서 아무리 만루 홈런을 칠 역량이 있는 타자라도, 풀 스윙만을 하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느니, 그라운드의 상황에 맞춰 단타를 칠 수도 있고, 2루타 혹은 3루타를 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번트를 대는 유연성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최근 자국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문화외교 또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매력의 개념적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에서 이 책의 필자들이 자연스럽게 맞닥뜨린 것은 다름 아닌 "과연 매력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다. 이러한 질문은 21세기 매력의 세계정치에서 국가의 매력을 논할 수 있느냐는, 매력국가론이라는 제목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발전하였다. 만약 19세기에 매력국가론이 있었다면 이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추구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정한 역량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매력은 실력으로부터 그리 자유롭지 못한 개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하여 매력의 개념적 독자성을 논하는 지금, '보아'나 '삼성 애니콜'의 매력을 한국이라는 국가의 매력과 동치시키는 것이 옳은가? 계다가 기업이나 개인의 매력을 국가의 매력으로 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야흐로 21세기 세계정치 권력의 변형이라는 축을 타고 진행되며 토론이 21세기적 변화의 다른 축인 세계정치 행위자의 다양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이 책의 필자들의

논제는 21세기 매력국가론에서 지칭하는 국가는 국민국가에서 상정했던 일종의 '노드국가(node state)' 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행위하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발전하였다. 실제로 21세기 매력은 19세기 형 국가가 나서서 직접 생산해 낼 수 없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국가의 등장은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력의 세계정치가 유독 21세기에 접어들어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국제정치학계의 각별한 주목을 받는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가장 넓은 의미에서 매력국가론은 궁극적으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문명의 세계정치'에 대한 탐구로 귀결된다.

세계 속의 매력한국

이상의 개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세계 속의 매력한국'에서는 소프트 파워와 매력의 개념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한국의 문화산업과 IT산업에서 발견되는 성공의 에피소드로부터 매력국가의 비법을 구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나이가 제기한 소프트 파워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21세기 매력의 세계정치가 지니는 다의(多意)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한류 열풍이나 삼성 애니콜 같은 최근의 성공사례가 매력국가 연구에 주는 의미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제1장 '매력의 세계정치'에서 최정운 교수가 이해하는 매력의 세계

정치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목도되어 온 일반적인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최 교수에 의하면, 매력의 세계정치에서 국가가 매력이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보다 높은 보편적 지적 수준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총체적인 것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풍요롭고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주변의 부러움과 존경을 살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떤

국내 대중문화의 인기에서 비롯된 한류는 내용과 지역 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나라가 매력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자국을 선전하는 행위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이 정보 사회가 형성되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나 선전만으로 존경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녀 관계에서 화장, 옷차림 등의 외형만으로는 상대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가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최 교수는 한 국가가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는 매력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부분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높은 지적 능력을 개발하여 '문명'을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제2장 '한류 열풍의 해부'에서 이안재 박사는 소프트 파워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박사의 지적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국가이미지 제고 등 경제·비경제적 파급 효

과가 막대한 매력적인 산업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문화산업은 한류를 비롯해 여러 성공사례를 창출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대중문화의 인기에서 비롯된 한류는 내용과 지역 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 전반에 걸쳐 막대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해외의 소비자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것은 한국 문화상품이 소비자에게 호소할 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한국이 매력적인 문화상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박사는 특히 이러한 경쟁력의 근원으로 튼튼한 산업의 기초 위에서 한국적 감성, 역동적인 국민기질, 풍부한 문화원형 등이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 'IT성공의 비결'에서 조화순 교수는 매력국가의 지식 측면, 특히 IT산업 분야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의 성장과 지식생산모델의 성공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조 교수에 의하면, 한국이 그동안 지식과 과학기술을 담은 IT상품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해 나가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 즉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와 기업 차원의 매력 창출전략이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된 결과라고 한다. 즉 한국 IT의 성공은 개별기업의 수준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제와 각 체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 문화, 이념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매력이 더욱 요구되는 21세기 국가혁신체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기술발전과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기술발전, 국내외 정치와 경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혁신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교수는 기업에 있어서도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기술력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감성, 문화의 요소를 더해 소비

자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매력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주변국가의 매력

제2부의 '주변국가의 매력'에서는 매력국가론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매력의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매력의 세계정치에서 패권적 지위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매력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담론의 성격과 이를 현실화하는 데 성공한 매력국가의 비결 또는 매력국가 건설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제약요인 등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제4장 '매력 딜레마에 빠진 미국'에서 전재성 교수는 역사상 유례없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본토 안보를 우려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매력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교수의 진단에 의하면, 미국이 처한 난관은 막대한 하드 파워에 동반하는 소프트 파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다자주의 국제제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국가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함으로써 패권의 지위에 올라서고, 소련제국과 같은 강력한 적(敵)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은 테러집단이라는 새로운 적에 맞딱뜨려 패권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도모해야 하는 국가목표에 직면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 내는가

에 따라 '본토의 안보가 유지될 것인가, 새롭게 부상하는 경쟁국들에 게 추월당하지는 않을 것인가, 세계 시민의 마음을 얻어 진정 축복받는 세계 지도국의 지위를 이어갈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세계에 대해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고, 미국이 행하는 정책, 미국이 보여주는 이념과 문화, 지식을 비판하는 경쟁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제5장 '매력 없는 경제대국 일본'에서 손열 교수는 매력국가론의 관점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이 창출하는 매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손 교수에 의하면, 일본은 매력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고, 스스로 매력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전파하고자 노력하는 나라이다. 손 교수가 해석하는 일본의 매력국가 담론은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갖는데, 일본에서 매력은 개혁을 추구하는 슬로건으로 사용되었으며, 매력자원을 동원하여 경제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경제논리가 강하게 내재해 있고, 일본이 만들어낸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을 반영한 표준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의 십 년에 걸쳐 매력국가론, 즉 매력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지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발전국가', 외교적으로 '평화국가', 문화적으로 '아시아국가'라는 모델이 일본의 매력 자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손 교수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매력자원을 매력적으로 포장하거나 실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은 발전국가를 제대로 포장하지 못했고, 평화국가와 아시아국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손 교수의 눈에 비친 일본은 결과적으로 매력 없는 부자 나라, 즉 경제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소프트 파워를 갖지 못한 나

라이다.

제6장 '중국, 그 잠재적 매력'에서 신상범 박사는 최근 급속히 부상한 잠재적 강대국 중국의 매력을 검토하고 있다. 신 박사에 의하면, 오늘날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 국가로서 실력뿐만 아니라 매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신 박사에 의하면 중국이 최근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매력추구 전략을 보여준다. 첫째, 중국은 서구도 아니며 선진국도 아니며, 특히 경제적으로 저발전 상태에서 매력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국가의 규모 면에서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면에서 약대국(弱大國)이며 따라서 매력국가 논의에 있어서 강대국, 강소국, 혹은 약소국의 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한 국가의 매력이 다른 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해석되는 것이 매력국가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때, 중국의 매력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 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신 박사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매력국가론의 이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매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신 박사는 이러한 특징들은 중국이 아직까지 실력이 약하다는 구조적 취약점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매력과 실력의 추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가 되려 하겠지만 당분간 중국은 매력보다는 실력기우기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매력국가 전략

제3부 '매력국가 전략'에서는 제1부와 제2부의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21세기의 매력국가로 부상하는 데 필요한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매력한국의 건설전략을 탐구함에 있어서 특히 앞서 언급한 문화, 지식, 외교의 세 가지 매력요소에 비추어 한국이 심력과 지력(知力) 및 지력(智力)을 증대함으로써 상대 국가들의 마음을 흐리어 끄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제7장 '문화유전자와 확산 네트워크'에서 민병원 교수는 문화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패러다임으로 '문화유전자'의 시각을 제시하고,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촌의 네트워크화 추세 속에 어떤 문화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민 교수는 문화의 영역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매력국가의 선행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20세기의 세계정치에서 국가의 정책목표에 '문화'라는 요소가 끼어들 자리가 매우 협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탈냉전 시기에 문화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와 지구촌이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포괄적인 문화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민 교수의 인식이다. 민 교수는 이런 역사적, 상황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수입되는 문화 담론들은 대부분 서양 강대국의 시각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과 같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중간 규모인 나라에 맞는 바람직한 문화모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 한국의 기술과 상품, 한류가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문화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지만, 이러한 다

양한 요소를 한데 아우르는 문화정책 패러다임은 여전히 아쉬운 형편이다.

제8장 '지식생산의 미래전략'에서 배영자 교수는 매력국가전략의 지식, 특히 기술 측면을 탐구하고 있다. 배 교수는 특정 국가의 국제정치적 매력은 그 국가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물론 학문, 예술, 윤리, 문화, 정치 수준과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종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질생활의 수준, 지적 능력 및 문화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기술과 지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빨라진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식사회의 등장은 권력자원으로서 기술과 지식의 위상을 증대시키고 있다. 기술과 지식은 경제적 부가가치의 핵심으로, 또 우주기술처럼 반드시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국가의 보편적 자작 능력이나 위신의 척도로, 나아가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풀어가며 국가의 정책이나 비전을 만들어 가는 능력의 토대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배 교수에 의하면, 현재 우리는 투자 대비 산출이 낮은 비효율적 지식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지식질서의 중심부에서 형성된 지식의 단순한 흡수 및 학습에 기초한 모방형 지식생산체계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외국지식을 적절히 소화한 뒤 이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보편적인 지식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인문사회 교양 교육과 기술지식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과 조직의 창의적 역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울러 학문 및 국경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 이질적인 지식과 다른 지식주체와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지식생산체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지적이다.

제9장 '매력한국의 문화외교'에서 김명섭 교수는 "매력개인론 대신 매력국가론을 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매력국가 전략의 외교적 측면을 탐구하고 있다. 김 교수에 의하면, 문화외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개념이며, 국가의 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작용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문화외교는 문화적으로 국가 자신을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

화외교는 단순히 한국의 매력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공간 속

에서 한국을 부단히 전국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민의 경계를 혈통적 표준(jus sanguinis)으로 나누기보다는 문화적 표준을 반영한 속지적 표준(jus soli)으로 나누는 것이 문화외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참정권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문화외교역량은 훨씬 증대될 것이며, 한국은 더욱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바이오시대의 새로운 나눔의 규범(Nomos)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의 문화외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인류역사상 무력 대비 매력의 크기가 가장 큰 국가는 바티칸이었는데, 일본의 천황은 교황을 흉내내고자 했지만, 정작 교황처럼 스스로를 속죄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김 교수는 보편적 표준을 제시하는 매력 있는 국가가 매력 있는 개인도 더 잘 길러낼 수 있으며, 매력 있는 개인을 잘 길러내는 국가가 매력 있는 국가라고 강조한다.

■ 한국의 기술과 상품, 한류가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문화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지만,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한데 아우르는 문화정책 패러다임은 여전히 아쉬운 형편이다.

매력국가론의 과제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시도된 이 책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 매력국가론이라는 사회적 토론의 화두를 던졌다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된 지난 몇 달 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찰되는 매력국가론의 전염력을 보면, 일단 매력국가론의 아이디어는 사회적 담론을 위한 긴 여정에 필요한 초기 단계의 착상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매력국가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름대로 매력을 지닌 모양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력국가론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토론의 보통명사가 되기 전에 고유명사로서의 지적재산권은 이 책의 필자들의 몫이라고 미리 밝혀 두어야겠다는 치기어린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매력국가론의 아이디어는 태생적으로 '저작소유권(copyright)'이 아닌 '저작공유운동(copyleft)'의 정신을 지향한다. 미래의 국가전략을 논하면서 정작 알맹이 있는 전략구상은 찾아볼 수 없는 국내의 물(沒)지성주의적 풍토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매력국가론의 지적공유가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력국가론 연구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론적인 차원에서 매력의 개념 자체에 대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매력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 분석적인 학술개념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논자마다 각기 다른 개념적 인식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매력 개념이 권력에 대한 개념으로서 지니는 내연과 외포는 무엇인가? 매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권력의 개념은 무엇이며, 기존의 권력 개념에는 없지만 매력이 새롭게

담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소프트 파워의 개념만 보더라도 매력이라고 할 수 없는 소프트 파워의 측면이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매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기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향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매력은 다분히 행위자 기반의 개념화(agent-based conceptualization)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매력은 '밀어붙이는 실력'과 '끌어당기는 매력'의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일견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매력이 엄밀한 분석개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력 개념에 대한 논쟁의 성과에 비추어 개념적 정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의 학계는 현실주의의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 또는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의 개념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며,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 구성적 권력(constitutional power) 등의 개념은 그러한 맥락에서 출현한 바 있다.

한편 경험적인 차원에서도 향후 매력국가론 연구는 사례분석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에 포함된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사례는 매력의 세계정치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스탠더드에의 도전에 실패하였고, 또는 앞으로 매력의 세계정치를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를 선택한 것이다. 이외에도 매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매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문화대국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매력적 소국(小國)의 이미지를 퍼뜨리고 있는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사례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비교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매력의 세계지도를 그려보는 작업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력의 세계질서는 어떠한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매력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주관적 또는 간주관적(間主觀的)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력의 세계적 분포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한가?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식 변수를 중심으로 본 세계지식질서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러한 매력(또는 지식)의 세계질서는 누가 주도해 왔으며, 최근 새로운 변화의 패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세계매력질서의 연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러한 매력의 세계질서에 대한 연구 작업에 난제가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에 대한 발상은 그 자체가 매력의 세계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 전략을 고민하는데 유용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매력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이냐? 우연한 성공의 에피소드를 넘어서 체계적인 성공을 준비할 길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매력한국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매력한국을 생산하는 국내체제에 대한 연구 같은 심층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매력국가에 대한 우리의 연구역량을 중대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매력을 중대시키는 세계정치적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이 책이 펴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 학기라는 길지 않은 기간에 전문가에게도 생소한 주제를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집필해 달라는 어려운 주문을 기꺼이 받아주신 아홉 분의 필자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직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주제인 데다가 학계의 연구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 준비과정에서 벌인 세미나에서 이루어진 토론의 수준은 가히 글로벌 스텠더드를 수립할 만한 것이었다고 자부한다. 특히 항상 상식을 뛰어 넘는 발상과 비유로 토론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신 최정운 선생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바쁜 시간을 끼어 매력국가론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보이시고 최종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하시어 귀중한 코멘트를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 SM엔터테인먼트의 김명민 사장, 외교통상부 정책총괄과의 오송 과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장인성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정재호 교수, 동아일보의 이동관 논설위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의 한승희 국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유석진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최종워크숍에서 각 세션의 사회와 진행을 맡아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남궁근 교수,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의 남중구 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하영선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따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이 책이 매력국가라는 표제를 달게 되기까지 필자들은 하 선생님께 자작으로 큰 빚을졌다. 특히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연성(軟性) 권력'이라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생경한 번역어에 담아내기보다 우리의 문제의식이 실린 좀 더 매력적인 말에 담아낼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은, 19세기말 이래 서구 사회과학 개념의 번역이 담고 있는 세계정치적 의미를 연구해 오신 하 선생님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자작자산권을 주장하시기보다 후학들과의 자작공유를 실천하시는 하 선생님의 자세는 매력국가론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최종워크숍의 토론 내용에 대한 정리를 맡아준 동아일보 편집국의 권재현 기자, 프로젝트 진행의 세세한 일을 쟁여준 동아일보 부설 21세기 평화재단·평화연구소의 황보영 행정간사, 번거로운 연락과 편집 작업을 담당해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의 이자선 간사, 최종워크숍의 토론자 섭외를 도와준 SM엔터테인먼트의 김은아 팀장과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의 이원경 조교 등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1세기 평화연구소의 산임연구위원을 맡아 본 프로젝트를 성심껏 지원해 주신 남궁근 교수에 대한 감사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필자들의 자작 의혹과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신 남중구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